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한국, 종합 14위로 금 2·은 5·동 2개로 목표 달성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사진 및 자료.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및 KBS, MBC, SBS



제24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난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다양했던 이야기와 감동, 아쉬움 속에 폐막하였다. ‘함께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를 슬로건으로 지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이 열렸던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진행된 이번 올림픽 폐회식에는 91개국의 기와 선수단이 입장하고, 남녀 크로스컨트리 매스스타트 우승자의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어 폐막 공연과 함께 올림픽 성화가 꺼졌고 화려한 LED 쇼와 폭죽 쇼와 함께 공식적인 지난 17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2026년 열릴 동계올림픽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코르티나에서 ‘서로 다르지만 함께(Duality, Together)’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베이징과 옌칭, 허베이성 장자커우 3개 지역에서 열렸으며 베이징에서는 빙상, 옌칭은 썰매와 알파인 스키, 장자커우에서는 알파인 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스키 종목이 펼쳐졌다. 총 7개 종목(15개 세부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전 세계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단이 경기를 펼쳤으며, 우리나라는 선수 64명, 관계자 56명, 코로나19 대응팀 5명 등 총 125명을 파견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결과

17일간의 숨 막힌 레이스 결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1위는 노르웨이(금메달 16개·은메달 8개·동메달 13개)가 차지했다. 독일은 총 10개의 금메달이 걸린 썰매 종목에서 9개의 금메달을 얻으며 종합 2위(금메달 12개·은메달 10개·동메달 5개)로 기록되었다. 개최국 중국(금메달 9개·은메달 4개·동메달 2개)은 3위에 링크되었고, 미국과 스웨덴, 네덜란



드는 금메달 8개씩을 얻으며 순서대로 4, 5, 6위로 마감했다. 한국(금메달 2개·은메달 5개·동메달 2개)은 14위로 쇼트 트랙에서 총 6개의 메달을 따내며, 메달 순위 15위 내에 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2월 6일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우리나라 선수 2명의 실격이 있었다. 하지만 2월 8일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에서 김민석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메달을 따내기 시작했다. 이어 황대헌이 쇼트트랙 1500m에서 값진 금메달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기록했다. 쇼트트랙의 최민정 역시 1500m에서 금메달과 1000m에서 은메달을 거머쥐며,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차민규는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김아랑, 서희민, 이유빈, 최민정은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얻었고, 남자 5000m 계주에서 곽윤기, 김동욱, 박창혁, 이준서, 황대헌도 은메달을 따냈다.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스타트에서는 정재원이 은메달을, 이승훈이 동메달을 따며 선전했다. 이승훈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 통산 6번째 메달을 수확하며 한국 선수 최다 메달 기록과 동물을 기록했다. 매스스타트의 김보름은 5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피겨스케이팅에서 유영, 김예림, 이시형은 데뷔전을 치렀고, 차준환은 남자 싱글에서 5위를 기록하며,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올림픽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스켈레톤, 봅슬레이, 스노보드 등에서는 지난 2018 평창올림픽에 비해 메달이 나오지 못해 아쉬움을 전했지만 시청자는 그 어느 때보다 열띤 응원을 하며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중계방송을 위해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중계진은 지난 2020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린 후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작년 말부터 사전 세팅 작업을 시작했고, 제작장비 운송과 방송센터 시설공사를 1월 중 마무리하며 차근차근 준비하며, 2월 4일부터 17일간 올림픽 경기 일정을 문제 없이 중계하기 위해 힘썼다. 코로나19로

중계 및 준비는 쉽지 않았다.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방송센터와 숙소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장의 감동을 그대로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청자는 올림픽의 현장을 느끼며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할 수 있었다.



중계를 위한 국제방송센터에서 우리나라 중계진에 많은 공간이 허락되지는 않았다. 지상파방송 3사는 공동 MCR(Master Control Room)을 운영하며, 제작비 절감과 프로그램 제작 공간 효율을 꾀했고, 각사 UNI 제작을 위해 UNI MCR과 OFF Tube 1실을 운영했다. 주요 종목만 현지 제작을 통해 송출했고, 그외 경기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다. 또한, 기계실(CTA, Centralized Technical Area)은 효율적인 공조시스템을 구성하고 화재 위험에 대비했다.



방송3사는 올림픽 개·폐막식과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의 중계를 위해 ONS(베이징 국립경기장), YSC(옌칭 국립 슬라이딩 센터), NSS(베이징 국립 아이스 스케이팅 경기장), CTS(베이징 수도 실내체육관)에서 OBS의 장소 제공받아 방송 장비와 카메라맨, 리포터를 통해 중계했다. 국제신호는 IBC 지상파 3사 POOL에서 수신해서 MBC, KBS, SBS에 분배되었다. 국제신호 제작 포맷은 HD와 UHD로 방송되었고, HD는 1.485Gbps 1080i/50, 5.1ch surround sound로 UHD는 11.88Gbps 2160/50p(HDR(HLG), BT2100), 8ch(5.1ch + Stereo) surround sound로 제작되었다.



이밖에 KBS는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선보였던, IBB(Integrated Broadcast Broadband)를 이용해 UHD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IBB 서비스를 통해 동계올림픽 기간 중 지상파 본방송에 편성되지 않는 경기를 제공하는 등 지상파 채널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으며, IBB 4채널, My-K 4채널 등을 운영하며 올림픽의 다양한 순간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